

# 책과 텔레비전이 win-win하기 위해서는...

## 내용 공유 통해 책은 속도를, TV는 넓이와 깊이 얻어야

글\_ 박영률 박영률출판사 대표

사람들이 책을 읽지 않는다. 젊은이들은 더 그렇다. 중·고등학생들은 참고서만 본다. 어린이들은 만화와 그림책만 본다. 초등학교 추천 도서 목록에 끼어 있지 않은 동화책도 읽히지 않는다. 할아버지·할머니도 책을 읽지 않는다. 이들은 신문도 잘 안 본다. 직장에서 퇴근하고 학교에서 하교한 뒤 시간이 있으면 텔레비전을 본다. 컴퓨터를 열어 뉴스를 찾는다. 그 사이사이에 핸드폰을 열어 문자를 주고받는다. 그래서 이들은 책 볼 시간이 없다.

텔레비전을 치워버리자는 사람들도 있다. 집에 이 물건이 없으면 가족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이 길어진다. 잠자리에 드는 시간도 빨라진다. 그래도 시간이 남아 책도 읽고 신문도 볼 수 있다. 기왕이면 집안까지 연결된 인터넷도 끊어버리자고 한다. 아이들이 컴퓨터 앞에 앉으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공부도 잊고, 밥도 잊고, 가족들의 얼굴도 잊고 그저 컴퓨터 앞에서 떠나지 않는다. 게임이든, 뉴스든, 지식검색이든, 채팅이든 꼭 같다. 그 앞에만 앉으면 아이든, 어른이든 일어나질 않는다.

사람들이 이러한 이유는, 재미있기 때문이다. 텔레비전은 책보다 재미있다. 컴퓨터 게임은 더 재미있다. 채팅은 훨씬 더 재미있다. 핸드폰 문자는 눈을 뗄 수가 없다. 재미있기 때문에 빠져든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재미있는 것 하기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책은 왜 보냐고 반문한다. 그러나, 틀렸다. 재미있어서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빠져들기 때문에 재미있는 것이다. 그럼 왜 책에는 빠져들지 않을까? 책은 너무 촘촘하고 밋밋하기 때문이다. 의식이 부빌 데가 없는 것이 책이다.

텔레비전은 영성한 매체다. 만화하고 똑같다.

한 캐나다 사람의 주장에 따르면, 사람은 영성한 매체를 만나면 빈 곳을 스스로 메워 가면서 본다고 한다. 그러지 않으면 말이 안 되고 그림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 만들고 그림 만들다 보면 텔레비전과 만화 내용의 절반은 보는 사람 스스로 만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빠져들게 된다. 팔짱끼고 멀쩡히 서서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는 사람이 텔레비전 화면 속으로 끼어들 수 밖에 없다.

극장에 가면 스크린에 붙어 앉은 사람이 없는데 텔레비전을 볼 때는 사람들이 자꾸 화면 앞으로 다가가는 까닭이 바로 이것이다. 영화의 화면은 면이다. 그러나 텔레비전 화면은 점이다. 점과 점을 연결해 면을 만드는 것은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시청자 자신이다. 빠져드는 것이다. 몰입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이런 상태가 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재미있다고 한다. 사실은 재미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것이다. 이것이 반복되면 중독이 된다.

책은 다르다. 글자를 읽어야 한다. 글자는 그 자체로는 아무런 뜻이 없다. 그것이 뭔가가 되려면 읽는 사람이 생각을 해야 한다. 생각을 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산소를 써버리는 곳이 바로 뇌다. 팔다리 움직이는 것보다 머리 돌리는 일이 훨씬 힘들다는 뜻이다.

텔레비전은 영상을 보여준다. 영상은 그 자체가 의미다. 세상에 있는 거의 모든 것을 꼭 같이 보여준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직접 알 수 있다. 글자는 그렇지 않다. 순서와 모양을 본 뒤 머리 속에서 다시 풀고 맞추어야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다. 보고 나서 사유해야 한다. 사유는 기억을 서로 연결하는 운동이다. 엄청난 산소와 포도당

이 필요하다. 몸이 중노동을 한다. 그래서 힘들다.

책과 텔레비전은 사람들의 시간을 놓고 다룬다. 승리자는 텔레비전이였다. 한국인은 여가 시간이 생기면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텔레비전을 본다. 그 다음이 인터넷, 그 다음이 컴퓨터 게임, 그 다음이 노래 듣기다. 책은 그 다음 자리에 있다. 어른들은 텔레비전을 보고 난 뒤에는 잠을 자는 것이 아이들과 다르다.

미국 사람들이 책을 읽는 시간이 주로 주말이라는 것은 재미있는 사실이다. 주5일제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런 생활을 오래하면 사람들의 생활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들도 처음엔 시간이 생기면 차를 타고 놀러 다니거나 잠을 자거나 맛집을 찾아다니거나 운동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생활을 오래 하다보면 처음엔 흥미롭던 것들이 시들해진다. 그러고 난 뒤에야 책을 읽기 시작한다. 사람 생활이 대개 이렇다.

책은 텔레비전 중독의 허기를 채우는 보약이다. 중독이란 말 자체가 실속이 없다는 뜻이다. 버릇이 되어서 안 할 수 없는 것, 그러나 영양가 없는 것이 중독이므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신의 영양실조가 심해진다. 텔레비전은 오래, 깊이 생각해야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는다. 몰입을 요구하는 매체의 성격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프로그램의 시청률은 1%대에서 허덕거린다.

대한민국 국민이 무식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미국이나 유럽이나 비슷하다. 유럽의 공영방송 텔레비전의 프로그램이 심각한 문제를 다룬다고 하지만 미국 상업방송에 비해서 그렇다는 것이 책만큼 심각하다는 뜻은 아니다. 몰입을 요구하는 텔레비전의 속성은 오랜 시간 냉정하게 생각해야 하는 프로그램을 품을 수가 없다.

텔레비전은 책의 날개가 될 수 있다. 책이라고 해서 다 책이 아니다. 산 것도 있지만 죽은 것도 많고 대부분은 잠든 것이다. 책은 사람이 읽을 때만 살아있다. 세상 어느 곳에선가 독서를 기다리는 동안 책은 잠을 잔다. 그 가운데 대부분은 읽혀지지 못하고 사람의 기억에서 사라진다. 잊혀진 책은 죽은 것이다. 책은 스스로 말하거나 움직이지 못한다. 그래서 책이 살려면, 독자가 책을 읽어야 하고,

그러려면 독자가 그 책을 알아야한다. 책이 살아나는 순간은 독자가 그 책의 존재를 아는 바로 그 순간에 시작된다.

그런데 세상에는 책이 많다. 우리나라에서도 매일 100종 정도의 책이 새로 나온다. 지난 백여 년 동안 세상에 나와 도서관에서 자고 있는 책의 수는 그보다 훨씬 더 많다. 책은 발이 없지만 텔레비전은 날개가 있다. 책은 스스로 몸뚱이를 옮겨야하지만 텔레비전의 전파는 눈 깜짝할 사이보다 짧은 시간에 세상 어느 곳이나 갈 수 있다. 책이 전파의 날개를 다는 수는 없을까?

전자책이 있다. 그러나 아직 긴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있었던 책, 또 새로 출간되는 책은 어떻게 할까? 아쉬운 것은 책인가, 아니면 텔레비전인가? 책은 속도를 얻고 텔레비전은 사유를 얻는다. 둘이 이렇게 서로를 주고 받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내용의 교환에 있다. 텔레비전은 빠르다. 그래서 무게가 없다. 책은 텔레비전의 속도에 무게를 보태줄 수 있다. 1차원의 프로그램을 2차원으로 보완할 수 있다. 순간의 경험을 사유의 지속으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텔레비전과 그의 시청자들은 시간 죽이기의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지식의 영양실조에서 회복될 수도 있다.

책은 텔레비전에게 속도와 넓이를 얻을 수 있다. 매일 또는 매주 시청자를 찾아가는 프로그램의 골격에 살을 붙이고 혼을 불어 넣으면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훌륭한 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책은 이미 그 이름과 얼굴이 시청자, 또는 잠재독자의 머리 속에 들어가 있다. 이름과 얼굴이 이미 고객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므로 이제 몸만 따라가면 된다. 다행스런 것은 요즘 우리나라 텔레비전의 프로그램 가운데 교양제작물의 수준이 매우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책이 요구하는 요소와 깊이를 내재한다. 이 정도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은 텔레비전이나 책이 아니다. 책을 만드는 편집자들의 사고방식이다. 우리 편집자들의 사고는 매일 매일 달라지는 텔레비전의 프로그램처럼 새로워지고 있는가? 그래서 책의 몸에 전파의 날개를 달아줄 수 있을 만큼 날래고 부드러운가? **▶▶▶**